

“역동적인 진안 건설 해로 만들 것”

전춘성 군수, 신년맞이 차담회 갖고 가시적인 발전·변화 다짐

전춘성 진안군수는 2일 “2024년은 역동적으로 진안을 건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맞이 차담회를 갖고 “지난 2023년이 진안군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며 우리군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진안군의 성공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북개발공사와 도시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및 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진안을 월당지구(면적 99,472㎡)에 600여 세대의 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원도심 기능 회복을 통해 진안을 떠나지 않고 되찾는 도심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미야산, 용담호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관내 산림·자연·문화 자원들의 가치 극대화를 강조하며, 생태관광도시 도약을 향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맞이 차담회를 갖고 “2024년은 역동적으로 진안을 건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진안군은 군립자연휴양림과 진안고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산림체육관광산업을 육성하고 2024년도에 개원 예정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조성사업과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생태

관광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 진안군의 신년 화두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개천을 이룬다는 뜻의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며 “이처럼 우리군도 그동안 꾸준히 마련해온 발판들이 가시적인 진안군의 발전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활짝

무주군, 새해 화두로 ‘본립도생’ 공유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공무원들이 2일 무주읍 예체문화관 1층 대공연장에서 만나 새해 각오를 다지며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문을 활짝 열었다.

현충탑 참배와 현화에 이어 시무식에서 공무원들과 마주한 황인홍 군수는 “무주다운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군민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립도생(本立道生 무순 일)이 든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를 화두로 감진년 청룡의 해를 시작한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2024년은 ‘자연특별시 무주관광’에 방점을 찍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문을 연 황인홍 군수는 “무주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친환경 생태계와 산림, 수자원 등 무주만의 자원을 자산 삼아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버팀목 삼고 태권도를 지역발전의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특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특

목고 설립, 태권도 진흥 및 콘텐츠 육성사업 등은 세계 속에 무주를 알리고 군민의 삶을 중요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등 생산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황인홍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민의 풍요로운 삶은 견고한 경제와 함께 촘촘한 안전망이 확보된 사회서비스로 완성된다”며 군민 생활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바로 세워진 정책과 공무원들의 추진력”에 달렸다고 강조한 황 군수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소통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군민 앞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공직자상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성화약진 자세로 비약적 발전 이룰 것”

최훈식 장수군수, 신년 기자 간담회 갖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한 해 청사진 그려

최훈식 장수군수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해 청사진을 그렸다.

최 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뜻과 의지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해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해가 장수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올해 주요 군정 방향을 밝혔다.

군은 먼저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발



최훈식 장수군수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굴하고 스마트팜, 청년농군사관학교 운영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을 위한 밑바탕을 더욱 탄탄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을 보탬이며, 올해 누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천 하이패스 IC 건립, 국도13호선 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력활력센터, 청년주택 '모람' 조성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2024년 새해에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화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추진

진안군은 2일 군민들이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망,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애 △헬스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사사고 사망 등 29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

진안군은 농업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논·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겨울철 소득작물 발굴 시범,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등이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17일~31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읍면 농업인 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각 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시행

진안군은 2024년부터 지역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어려움 해결 및 포용적 혁신성장 실천전략으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한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군청 농촌경제국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24명을 관내 농공단지 평균 총사자 5인 이상 입주기업과 1대1로 매칭하고, 담당 직원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책이다. 이를 통해 군은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 취임

무주군은 2일 서재영 부군수가 임명장을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재영 부군수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이 활짝 꽃피는 무주군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여는 중요한 시점에 함께 하게 돼 가슴이 뛰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쌓아온 공직 노하우를 무주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과 무주군 발전, 그리고 군민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인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정착시



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결국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의 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라는 엄청난 기회 앞에 선 만큼 무주를 일구는 약동의 해로 삼아 다 같이 능력과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더 올라서보자”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